



중국 최초 민영·외자 보험합자회사 등장과 시사점

왕양비 연구원

- 최근 중국 복성그룹(复星集团)과 미국 프라메리카 금융그룹(Pramerica Financial)의 합자회사인 복성 보덕신 생명보험회사(复星保德信人寿公司)의 설립계획안이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, 동 회사가 설립되면 중국 최초의 민영·외자 보험합자회사가 탄생하게 됨.
 - 1992년 상하이에서 설립되고 2007년 홍콩에 상장된 복성그룹은 현재 의료, 제약, 철강, 광업, 상업 투자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중국 최대 규모의 민영기업 중 하나로써 ‘중국 500대 기업’에 드는 우수기업임.
 - 미국 최대의 생명보험회사 중 하나인 프라메리카보험과의 합작으로 복성그룹은 자사의 의료 및 제약사업 영위에 도움이 되는 생명보험산업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, 프라메리카금융그룹도 중국 광대은행(光大銀行)과 합자한 펀드관리회사 이외에 중국 내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됨.

- 시장점유율이 낮은 민영보험회사의 경우 그동안 주로 국유기업과의 합작을 많이 해 왔는데, 이러한 외자계 보험회사와의 합자회사 설립은 민영보험회사들의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경로가 될 전망이다.
 - 2004년 들어 민간자본이 대대적으로 보험시장에 진입한 이후 많은 민간자본에 의한 보험회사가 설립됨.
 - 그러나 투자 지속성 문제로 인해 다수 민영보험회사들이 2007년부터 주주권 변경을 통해 자금이 풍부한 국유기업의 지원을 받음.
 - 특히,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7~8년 걸림.
 - 현재 민영보험회사들의 적극적 시장개발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과 합작하지 못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.
 - 중국 생명보험회사 34개사 중 상위 10개사의 올 상반기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이 93.4%에 달하며, 동 회사들은 모두 국유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조사됨.

- 반면 5개 민영생명보험회사의 경우 153억 위안의 수입보험료로 시장점유율이 2.8%에 그침.
- 또한, 36개 중국 손해보험회사의 상위 10개사도 모두 국유기업이 대주주인 회사이며, 동 회사들은 올 상반기 2,098억 위안의 수입보험료로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86.8%를 차지함.
- 한편, 민간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10개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대부분 하위권에 위치하고, 최하위 3개사는 모두 민영회사인 것으로 보도됨.
- 이에 금번 복성보덕신 생명보험회사의 설립은 국유기업과의 합작 이외의 방법으로 외연확대를 추진하는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짐.

(화선 9/23, 증권시장주간 9/27, 증금재선 9/28 등)